

【논 문】

申采浩의 世界觀과 第3次露日協約(1910-1912)
- 러일의 내몽골분할협약(1912)체결을 중심으로 -

최 덕 규*

┌ 차 례 ─┐

1. 머리말
2. 申采浩의 世界危機 認識과 러·일의 滿蒙정책
3. 滿蒙위기의 구조 :
美·淸·獨의 滿蒙회복정책과 露·日의 滿蒙분리정책
4. 滿蒙위기의 결과 :
내몽골분할을 위한 第3次露日協約 체결과 발칸·滿蒙문제의 접속
5. 맺음말

─ 국문초록 ─

丹齋 申采浩가 1910년 1월 21일 大韓每日新聞의 논설 “滿洲問題에 就하여 再論함”에서 “지금 만주는 동양의 발칸반도(即今 滿洲는 東洋의 巴爾幹半島라)”로 정의한 것)은 당대 대한제국 지식인의 글로벌한 세계관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가 발칸문제와 만주문제를 연쇄와 연동의 동일선상에서 바라본 논거는 바로 “과거 유럽에서 어떤 나라의 강함과 약함, 어떤 나라의 존망이 항상 발칸반도 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유럽역사의 모태가 바로 발칸반도라는 얘기다. 이는 한반도와 만주 역시 역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논증한 그의 만주관을 발칸의 역사에 투영한 것인바, 세계사 해석에 대한 신채호 선생의 탁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발칸반도와 만주를 비교하고 접속시킨 단계의 세계관은 그가 제시

* 동북아역사재단

한 4천년 불변의 법칙(四千年 鐵案不易 定例)²⁾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과 壹衣帶水를 隔한 만주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민족의 성쇠가 갈린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신채호는 뜻있는 군자는 “보호국의 지옥(被保護의 地獄)”에 떨어졌더라도, 망국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눈을 들어 ‘世界列強의 競爭點’이 된 만주문제를 밤낮으로 힘을 다해 연구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나아가 신채호 선생이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에게 만주연구를 촉구한 보다 긴급한 이유는 “大戰爭” 발발에 대한 예견이었다.³⁾ 그가 “비스마르크(Bismarck)나 카부르(C.B.Cavour)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만주문제에 대해 고뇌할 때”라고 판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가 우려한 바는 만주문제의 불안정성이 大戰爭으로 비화할 가능성이었다.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하는 것이 천하의 대세임에도, 만주는 이미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바, 한때 러시아의 세력권이 되었었고 현재 열강의 세력균형 하에 놓이게 되니 향후에는 또 어떠한 만주가 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거였다. 요컨대 단재는 장래 어떤 “大戰爭”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바로 동양의 발간인 만주문제에서 비롯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만주문제로부터 전쟁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신채호 선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각자가 본분에 진력하는 동시에 “장래 우리국민도 어떻게 하면 만주문제에 끼여들 것인가 모두가 나눠 연구할 바”가 그것이다.⁴⁾

이에 본 논문은 100년 전 신채호 선생의 세계관을 계승하여 만주문제가 어떻게 발간반도문제와 연동되는지를 러시아와 일본의 내용골 분할협정(1912)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밝히고자했다.

주제어 : 신채호, 제1차세계대전, 제2차러일협약, 제3차영일동맹, 달러외교

- 1) 大韓每日申報. 1910.1.21.『滿洲問題에 就하여 再論함 續』
- 2) 大韓每日申報, 1908.7.25.『韓國과 滿洲』: 韓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强盛하며 他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民族이 劣退하고 又は 他民族中에도 北方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國이 北方民族 勢力圈內에 入하며 東方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國이 東方民族 勢力圈內에 入하니 嗚呼라 此는 四千年 鐵案不易의 定例로다.
- 3) 歐洲의 某國의 强함과 某國의 弱함과 某國의 尊함과 亡함이 恒常 巴爾幹半島 問題부터 始한지라. 故로 俾斯麥 加富爾(Camillo Benso Cavour, 1810-1861)其人이 有면 正히 滿洲問題를 就하여 腦를 費할 日이 아닌가. 且無常히 變動하는 者는 天下의 大勢라 滿洲 自身이 既히 自立할 能力이 無한故로 當年 俄國 勢力內에 歸하며 今日 列強 均等內에 歸하니 明日 又 明日에는 又何如한 滿洲 될는지 難知며 又次問題로 出하여 將來 何許 大戰爭이 出할는지도 難知니 奇壯하다 滿洲風雲의 舞臺에 有志男兒의 出現을 促하는도다.(大韓每日申報. 1910.1.21.)
- 4) 何如히 하면 將來 我國國民도 此等問題에 容喙함을 得할가 함이 峇公等の 分니 研究할 바니

1. 머리말

丹齋 申采浩가 1910년 1월 21일 大韓每日新聞의 논설 “滿洲問題에 就하여 再論함”에서 “지금 만주는 동양의 발칸반도(即今 滿洲는 東洋의 巴爾幹半島라)”로 정의한 것⁵⁾은 당대 대한제국 지식인의 글로벌한 세계관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가 발칸문제와 만주문제를 연쇄와 연동의 동일 선상에서 바라본 논거는 바로 “과거 유럽에서 어떤 나라의 강함과 약함, 어떤 나라의 존망이 항상 발칸반도 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유럽역사의 모태가 바로 발칸반도라는 얘기다. 이는 한반도와 만주 역시 역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논증한 그의 만주관을 발칸의 역사에 투영한 것인바, 세계사 해석에 대한 신채호 선생의 탁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발칸반도와 만주를 비교하고 접속시킨 단재의 세계관은 그가 제시한 4천년 불변의 법칙(四千年 鐵案不易 定例)⁶⁾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과 壹衣帶水를 隔한 만주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민족의 성쇠가 갈린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신채호는 뜻있는 군자는 “보호국의 지옥(被保護의 地獄)”에 떨어졌더라도, 망국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눈을 들어 ‘世界列強의 競爭點’이 된 만주문제를 밤낮으로 힘을 다해 연구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나아가 신채호 선생이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에게 만주연구를 촉구한 보다 긴급한 이유는 “大戰爭” 발발에 대한 예견이었다.⁷⁾ 그가 “비스마르크

라(大韓每日申報. 1910.1.21.)

5) 大韓每日申報. 1910.1.21.『滿洲問題에 就하여 再論함 續』

6) 大韓每日申報, 1908.7.25.『韓國과 滿洲』: 韓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强盛하며 他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民族이 劣退하고 又は 他民族中에도 北方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國이 北方民族 勢力圈內에 入하며 東方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國이 東方民族 勢力圈內에 入하니 嗚呼라 此는 四千年 鐵案不易의 定例로다.

7) 歐洲의 某國의 强함과 某國의 弱함과 某國의 尊함과 亡함이 恒常 巴爾幹半島 問題부터 始한지라. 故로 俾斯麥 加富爾(Camillo Benso Cavour, 1810-1861)其人이 有면 正히 滿洲問題를 就하여 腦를 費할 日이 아닌가. 且無常히 變動하는 者는 天下의 大勢라 滿洲 自身이 既히

(Bismarck)나 카부르(C.B.Cavour)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만주문제에 대해 고뇌할 때”라고 판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가 우려한 바는 만주문제의 불안정성이 大戰爭으로 비화할 가능성이었다.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하는 것이 천하의 대세임에도, 만주는 이미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바, 한 때 러시아의 세력권이 되었었고 현재 열강의 세력균형 하에 놓이게 되니 향후에는 또 어떠한 만주가 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거였다. 요컨대 단재는 장래 어떤 “大戰爭”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바로 동양의 발칸인 만주문제에서 비롯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만주문제로부터 전쟁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신채호 선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각자가 본분에 진력하는 동시에 “장래 우리국민도 어떻게 하면 만주문제에 끼어들 것인가 모두가 나뉘 연구할 바”가 그것이다.⁸⁾

이에 본 논문은 100년 전 신채호 선생의 세계관을 계승하여 만주문제와 어떻게 발칸반도문제와 연동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滿蒙정책에 착목한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는 만주와 발칸반도와 연결해있는바, 러시아를 중심으로 만주와 발칸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이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할 경우, 만주의 위기가 발칸의 위기와 연동되는 구조가 마련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는 丹齋가 예견한 “大戰爭”으로서의 제1차 세계대전이 만주문제와 어떻게 접속되는지를 구명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발지로서의 발칸반도와 열강의 이익이 집중되어 있었던 만주의 접속은 상술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방점 이동과 맞물려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먼저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의 패전이후 만주에서 수세에 몰리고

自立할 能力이 無한故로 當年 俄國 勢力內에 歸하며 今日 列強 均等內에 歸하니 明日 又 明日에는 又何如한 滿洲 될는지 難知며 又次問題로 出하여 將來 何許 大戰爭이 出할지도 難知니 奇壯하다 滿洲風雲의 舞臺여 有志男兒의 出現을 促하노도다.(大韓每日申報. 1910.1.21.)

8) 何如히 하면 將來 我國民도 此等問題에 容喙함을 得할가 함이 皆公等の 分니 研究할 바니라.(大韓每日申報. 1910.1.21.)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몽에서의 기득권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원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패전국 러시아의 약세를 틈타 1910년 말 淸國이 대등한 양국관계를 수립하려는 통상조약개정을 서두르고 있었음에도 러시아의 유럽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유럽복귀는 발칸반도에서 범슬라브주의를 고양시킴으로써 남슬라브계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오스트리아 황태자 저격사건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아울러 발칸반도와 滿蒙지역을 잇는 정치적 연결고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1882년에 체결되어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된 3국 동맹체제(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에 맞서 1907년에 성립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의 협상체제인 ‘4국양탕트체제(the Quadruple Entente)’는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진영과 협상진영간의 대립을 고조시키는데 일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유럽패권을 둘러싸고 독일과 경쟁을 벌이던 영국은 협상진영의 일원인 러시아의 유럽복귀를 모색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영국은 만몽에서 기득권 사수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던 러시아에게 만몽지역을 특수세력권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반면 중화민국의 滿蒙에 대한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중국의 주권지역이었던 만주와 몽골이 러시아와 일본의 독점세력권으로 변모한 반면 발칸반도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간의 대립은 증폭되고 말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채호의 세계관을 상술한 3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고찰함으로써 만주문제와 발칸반도의 연동구조 이해하고 그것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다음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러일전쟁이후 러시아의 만몽정책과 청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패전이 러청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한다. 1905년 러시아의 패전, 1908년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 1909년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수립, 1909년말 미국

테프트 행정부의 만주철도중립화계획, 1910년 제2차러일협약 체결(7.4), 한일병합(8.29) 그리고 청국의 대러통상조약 개정요구에서 나타나듯이 발칸반도와 만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국제적 사건들은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종래의 불평등한 러청관계를 변경시키려는 청국과 이를 지지한 미국과 독일이 獨美清 共助를 추진한 반면,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의 현상유지를 위해 러일공조체제를 수립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양대 공조체제간의 대립은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을 추구한 청국 및 미국 그리고 만주를 중국에서 분리하고자 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獨美清 共助와 露日共助체제간의 대립이 후자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상술한 4개국(영·불·러·일) 양당트체제가 실제로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러시아와 일본은 제3차 러일협약체결을 통해 내몽골 분할에 합의할 수 있었다.⁹⁾ 그 결과, 滿蒙에 대한 특수이권을 보장 받은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영독 패권경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단재선생이 언급한 만주와 발칸반도의 연동구조가 성립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글로벌히스토리의 거시적 시각에서 단재선생의 세계관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의 아시아적 기원 문제를 고찰해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만몽문제와 발칸반도의 연동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公刊자료인 일본의교문서(日本外交文書), 미국대외관계자료집(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관련 영국문서집

9) 제3차러일협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단지 일본의 吉村道男[吉村道男, 「第三回日露協約成立前後-露蒙協約との關連に於いて-」, 『國際政治』, 31號, 1965.] 과 국내의 배경한 교수의 성과 [배경한, 「동아시아역사속의 신해혁명-공화혁명의 확산과 동아시아국제질서의 재편-」, 『東洋史學研究』, 제117집, 2011.]들이 이 주제의 연구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요시무라는 외몽골의 독립과 露蒙修好協約체결(1912. 11.3) 전후의 동아시아 정세에 초점을 맞춰 주로 일본의 對滿蒙정책을 살피고 있다. 반면 배 교수는 신해혁명을 전후한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요구와 그에 대한 중화민국의 대응을 검토하고 변방의 독립의 의미를 고찰했다. 전자가 몽골의 독립을 둘러싼 러일의 양국의 정책을 고찰했다면 후자는 신해혁명기 변방 소수민족의 독립의 의미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조망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신해혁명기 중국변경의 위기를 러일 양국 또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 위기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신해혁명은 유럽의 발칸위기와 동시대적 사건으로서, 제국주의 열강, 특히 영국은 중국사태보다는 발칸의 위기를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War)을 활용했으며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국립 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소장 자료를 발굴하여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2. 申采浩의 世界危機 認識과 러·일의 滿蒙정책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됨으로써 세계의 화약고인 발칸반도와 연동된 극동지역은 만주였다. 만주는 발칸과 마찬가지로 안정화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왜냐하면 발칸과 만주는 열강의 이해가 교차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속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丹齋 선생의 세계관은 근대만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확한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현재 세계경쟁이 동양에 집중하고 동양문제는 만주가 前提되나니, 然則 이 시대 만주는 열강의 시선이 주집하는 곳이니 이는 近世史上的 滿洲라”¹⁰⁾. 요컨대 만주는 당대 세계열강의 최대 관심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열강의 이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 바로 만주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매일신보(1910년 1월 12일) 사설 「滿洲와 日本」에서 만주의 기득권 세력인 러시아와 일본에 대해 타 열강의 도전과 간섭이 본격화될 것임을 지적한 것은 국제정세에 대한 그의 탁견을 반영해 주고 있었다. “...청국과 일본간 협약「간도협약」필자이 된 소문이 낭자하니 더 사나운 호랑이의 태도를 가지고 사방을 엿보는 구미 열강국이 어찌 이 시대에 이익이 모인 중국 내륙에 제일 긴요한 땅이 되는 만주천지에서 아라사와 일본 두 나라만 마음대로 뛰놀게 맡겨두며, 또 어찌 동방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일본의 활개 짓을 앉아서 보리오”.¹¹⁾ 이같은 丹齋의 세계관은 만주가 아시아

10) 大韓每日申報. 1910.1.20. 『滿洲問題에 就하여 再論함 續』, “現今 世界競爭이 東洋에 集中하고 東洋問題는 滿洲가 前提되나니 然則 此時代 滿洲는 列強의 視線이 注集하는 所이니 此는 近世史上的 滿洲라”

11) 大韓每日申報. 1910.1.12. 『단재 신채호전집』, 제6권 논설·사론(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의 변방이 아닌 세계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나아가 아시아의 화약고가 곧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만주가 세계위기의 진원지가 된 원인으로 신채호는 일본의 만주정책을 꼽았다. 요컨대 만주의 안정을 교란하는 실체가 바로 일본이라는 얘기다. 왜냐하면 “만주는 일본발전의 門路요, 일본 활동의 근거지요, 일본장래의 입각점이라 만주의 得喪問題는 즉 일본의 사활문제”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본이 수십 광년 고심하고 청일, 러일전쟁에 힘을 쓰고 십수만 인민을 죽이며 수백억 재정을 쏟아 부어 근근이 남만주 反幅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고 그곳에 철도를 부설하며 여기에 군경을 설치하여 식민정책을 격려”하였기 때문에 만주의 문호개방과 상업상의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세력과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신채호는 일본이 만주에 집착할수록 만주위기는 심화되어가는 상관성에 주목한 바, 위기의 본질이 만주를 둘러싼 미일대립이었기 때문이었다. 미일간의 갈등은 만주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대립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의 만주독점 정책과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으로 표출된 양국간의 정책 충돌은 그들의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 일본에게 만주는 피를 흘려 차지한 러일전쟁의 전리품이었던 반면, 미국에게 만주는 청제국의 영토이자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모든 국가에게 상공업상의 기회균등 원칙이 보장되어야 할 지역이었다. 이는 ‘보편’과 ‘특수’라는 세계관의 충돌이었다. 특히 미국은 만주에서 모든 국가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문호개방’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뒤늦게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들어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열세를 만회해보고자 했다. 이는 법률가 출신인 태프트(W.H.Taft)가 1909년 미국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만주중립화안을 제안하면서 만주의 기득권 세력인 일본과 러시아와의 불꽃 튀는 사활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신채호는 사설 「滿洲와 日本」에서 만주에 사활을 걸고 있던 일본의 곤경을 정확하게 진단

하였다. “미국대통령 태프트씨의 만주중립안의 각서가 제기되니 영국은 찬성의 의사를 표하며 독일, 청국도 동정의 답서를 보내고 영불 양국도 반대의 의사가 역시 없다고 하니 오호라 오늘 일본인의 만주문제여.”

이에 丹齋는 일본이 비록 만주에 사활을 걸고 세력확장에 박차를 다하고 있지만 열강의 견제에 직면하여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예견한다. “이것만 보아도 죽히 이에 대한 열강의 動勢를 可度할지로다. 열강의 동세가 如是한지라 彼美國이 自家의 목적을 達키 위하여 竭力勇進할 것은 물론이요 露國은 東清鐵道를 매각하여 상당한 수입을 득하고 한편으로 일본銳鋒이 자연 驅除되게 하며 다른 한편 시베리아 개발에 安心 傾力할 진즉 이것이 露國이 心喜할 바오 청국은 自家 發祥地 되는 만주를 何方으로던지 還覓함이 그 소원일지며 英獨兩國도 세력균등주의를 열심히 찬성할지오 프랑스는 만주방면에 직접 관계는 없으나 역시 이 문제가 프랑스에게도 이익만 있고 해는 없을 진즉 이를 찬성함은 역시 당연한 일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열강이 이를 同聲贊同함이로다.

이에 이 문제로 인하여 害를 迫하고 憤을 품은자는 오직 일본뿐이니 저 일본이 死를 抵하고 反抗을 作함은 亦固然의 理라 然이나 以若東亞一涯에 있는 작은 섬나라 일본이 그 열강을 어떻게 대하리오. 오죽 已往 淸日戰後 遼東還附의 舊戲가 復作할 뿐이 아닐까.(...중략...)

오호라 일본이 죽을힘을 다해 얻었고 지켜내던 만주를 一朝輕擲하기 甚惜하나 其亦 無何하리로다. 又設或 何等變潮가 起하여 이 문제를 得徹한다 하더라도 필경 일본이 열강에 대하여 何等 相當의 代價를 不出하면 不可할 진더”.

그러나 1910년 초 미국의 만주철도중립안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신채호가 예견했던 청일전쟁 직후 구미열강에 의한 삼국간섭의 재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삼국간섭의 주도국이었던 러시아가 오히려 일본편을 들어 미국의 만주중립안을 거부하기로 선회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일본과 대적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만주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일타협을 통해 북만주와 몽골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만주문제는 안정화되지 못한 채, 기득권 세력인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문호개방 세력인 미국, 청국, 독일간의 치열한 경쟁의 무대로 변모함으로써 발칸의 위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는 러일전쟁(1905) 이후 몽골의 독립시기(1911)까지 한반도, 만주, 몽골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러일 전쟁의 패전국인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이 아닌 타협과 협상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쓰시마해전(1905.5.28-29)에서 제2태평양함대(발트함대)가 전멸한 사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러시아 해군력의 공백상태는 연해주의 방위뿐만 아니라 발트해에 연해 있는 수도 페테르부르크(С.Петербург)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력을 복원할 때까지 대외전쟁을 회피해야만 했던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재현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문제들이 유럽의 그것들과 연동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의 세계사는 오스만터키와 중국과 같은 구제국의 몰락과정과 맞물리는데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제국의 구심력 약화과정이기도 하였다. 제국위기의 징후는 제국의 외곽을 이루던 근동과 극동에서 나타났는데, 발칸반도와 한반도가 그 중심에 있었다.

러시아와 민족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가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해 병합(1908.10.6)되었음이 선포¹²⁾된 지 半年도 되지 않은 1909년 3월 말, 일본의 고무라(小村壽太郎) 외상은 가쓰라(桂太郎) 수상에게 ‘한국병합방침안’을 건의하고¹³⁾, 4월 10일 이토(伊藤博文) 통감이 이에 동의한 후 일본정부는 동년 7

12) Истор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конец XIX-начало XX века,(М: Междуна р. Отношения), 1997. С. 233-245.

13) РГИА. Ф. 560. Оп. 28. Д. 392. Л. 200-201. 당시 상하이에 소재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극동척보기구(Shanghai Service)의 책임자인 고이에르(Фон Гой ер)는 1909년 3월 17(30)일

월 6일 각의에서 이를 확정지었다.¹⁴⁾ 이는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병합이 일본에게 한국병합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보스니아와 한국은 네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보스니아는 1878년 베를린조약(Treaty of Berlin)에 의해 오스트리아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 이었고, 한국 역시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일본의 보호국으로 있다는 점이며 러시아가 양대 조약의 주요체약국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오스트리아와 일본이 각각 무력점령하고 있는 보스니아와 한국을 병합시키기 위해서는 지 위변경의 절차가 필요한데 점령지를 제국의 일부로 병합하기 위해 러시아의 동의를 구했다는 점이다. 셋째,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의 약세를 틈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병합을 기정사실로 한 후, 러시아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후자는 이를 저지시키기 보다는 단지 동의에 대한 대가에 만족해야만 했다.¹⁵⁾ 일본 역시 제2차 러일협상(1910.7.4) 과정에서 한국병합을 기정사실 화함으로써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기 보다는 그 반대급부로 북만주와 몽골에 대한 러시아의 권한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넷째,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와 일본에게 병합문제에 대해 묵인하게 된 원인은 발트해와 연해주 의 안전을 고려한 군사적 측면이 강했다. 러시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병합을 묵인하는 대가로 오스트리아로부터 러시아군함의 흑해해협 통과를 금지한 베를린조약을 수정함으로써, 흑해함대를 발트해로 이동시켜 쓰시마 해전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발트함대를 복원시키고자 하였다.¹⁶⁾

한편 한반도의 경우, 러시아는 연해주 방위와 東淸철도(Chinese Eastern Railway)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한러국경지역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저지

주일대사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한일병합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은 당연히 편리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바, 아마도 근동에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분규 속에서 그것을 참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 14) 방광석, 「메이지정부의 한국지배정책과 이토 히로부미」,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선인 : 2009), 68-71쪽.
- 15) 3. История Дипломатии. Т.II(Дипломатия в новое время (1871-1914) М., 1963. С.649-658.
- 16) Там же.

하고자 했다. 전후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병합을 묵인하는 전제 조건은 연해주 및 극동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의 중단이 될 것이었다.¹⁷⁾

러시아가 자국의 약세를 인정하고 對日妥協을 도모하는 동안, 일본은 청제국이 얼마나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청정부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바, 만일 청국에서 대규모 혼란과 정치적 변란이 발생한다면 만주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이 크게 손상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중하지 못한 현상변경 시도에서 야기되는 기회비용에 대해 일본지도자들은 부담스러워 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909년 5월 13일 주일영국대사 맥도널드(C. McDonald)를 만난 자리에서 “3년 내에 중국에서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 예견한 것¹⁸⁾도 열강의 대중국 간섭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결과였다. 이토와의 회동에 관해 영국 외상 그레이에게 보낸 맥도널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토는 중국이 극도의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계 및 개혁정책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청정부와 조정은 권력 장악을 위한 음모와 파쟁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중앙정부를 약화시키고 힘과 능력을 겸비한 원세개도 떠남으로써 북경정부에 대화상대가 없다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중국청년당(The Young Chinese Party)이 현재 권리회복정책(the Rights Recovery Policy)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말 앞에 마차를 놓은 형국(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스스로 태만과 부주의로 잃어버린 권리의

17) Отрывок из донесения Л. Фон Гой ера министру Финансов В.Н.Коковцову о в озможных союзниках России в Маньчжурии, 19 января 1910 г. Россия и США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1999. С. 146-149.

18) C. MacDonald - E. Grey, 13 May 1909.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war, Ed. by G. P. Gooch and Harold Temperley. (이하 BD로 약함)

회복에 대해 서구열강에게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말과 마차를 순서대로 배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각하지 못한 중국현실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과거 일본의 경험을 비추어본 결과로서, 그는 과거에 여러차례 타협적인 대외정책을 조언하여 비난을 받은바 있으나, “일본이 집안정돈을 잘하기 전까지는 외국열강에게 말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양보적인 정책을 조언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토에게는 중국이 내정을 정비하기 전에 제국주의 열강에게 권리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내우외환을 부추겨 혁명의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기여할 뿐이었다.

이에 이토는 본국출장을 앞둔 맥도널드에게 중국문제에 대한 영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그의 진의가 영국정부에 전달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동양의 평화가 영일동맹에 의존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토는 영국인들이 국내문제에 함몰되고 극동보다는 근동의 현안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에서 사태의 추이에 예의주시해줄 것을 일본정부는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장래와 관련하여, 영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인도에서 영국에 커다란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요컨대 영국이 중국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기대하는 동맹국 일본의 희망을 저버린다면, 인도에 대한 일본의 방위부담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일본정계의 원로이자 당대의 경세가로서 이토의 이같은 견해는 결국 신해혁명이라는 드라마의 줄거리와 개요를 정리한 시놉시스(sinopsys)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이후 일본과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 갱신조약(1905.8.12) 제3조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인도에 대한 양국의 공동방위 의무를 삽입한 제3차 갱신조약(1911.7.8)을 체결하고, 1913년 영국이 티베트를 중국과 인도의 완충국가로 삼기위해 인도북부의 심라(Simla)에서 영·중·티베트의 3자회담을 개최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중국문제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촉구한 이토는 이를 바탕으로 남만주에 대한 일본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주일영국대사가 “요동반도의 조차기한이 다가올 경우, 대련항의 장래”에 대한 이토의 입장을 질의하자 그 대답형식으로 표출되었다. 이토는 먼저 일본정부가 장래 대련보다는 여순을 상업항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힌 후, 조차기한(1923)까지 아마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 요동반도의 중국환부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비록 “남만철도가 수익성이 없고 대장성에서 철도와 항구 유지비용을 대야할 처지가 된다면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일본은 결코 남만주에서 철수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이토는 일본의 만주정책을 러시아의 그것과 연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상당부분 북만주의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바, 그들이 하얼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남만주에 남아있을 것”임을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토와의 회동에 관한 주일영국대사의 기밀보고서는 신해혁명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토가 앞서 우려한 바와 같이, 청국은 내정의 정비보다는 불평등한 대외관계의 조정과 권리회복에 전력하면서 인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러일전쟁의 패전으로 동아시아에서 약세를 노출한 러시아에 대한 청국의 공세 역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1910년 청국은 10년마다 갱신 혹은 자동 연장하기로 한 러청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1881.2.14)의 15조에 따라, 이를 러시아와의 조약개정을 성사시킬 호기로 간주했다. 청국이 도모한 러청간의 통상조약 개정은 러시아의 특권폐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1) 신장 및 몽골에서 러시아 상인들의 무관세 무역폐지 2) 중국에서 러시아인의 치외법권 폐지, 3) 신장지역 등지에서 러시아 신민의 토지매입 금지 4) 러시아 소재 중국 영사관 개설권이 그것이다.¹⁹⁾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성은 청국이

19) *Монсеев В.А.* Россия и Кигай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러청관계의 재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국과 서구열강과의 새로운 조약관계를 수립을 의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²⁰⁾ 요컨대 청정부는 러일전쟁에서의 패전국 러시아의 약세를 틈타 기존의 러청관계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섰는가? 이는 러시아로 하여금 종래의 러청관계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호혜적인 새로운 대청관계를 수립해야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였다. 후자의 경우, 중국을 열강의 반열에 올려 평등하고 호혜적인 조약을 체결하는데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고 전자의 경우, 청국의 요구를 묵살하는 대신 군사적 충돌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했다. 1911년 1월 26일 “청국문제 관련 특별회의”가 소집된 이유도 바로 상술한 대청정책노선을 확정짓기 위함이었다.²¹⁾

특별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Извольский А.П.)는 재무상 코코프초프(Кокочев В.Н.)에게 통상조약 갱신문제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담긴 기밀서신(1910.11.30)을 발신한바,²²⁾ 이는 청국이 대러통상조약 개정을 시도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즈볼스키는 현재의 러청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변모한 원인으로 한일병합의 법률적 토대가 되었던 제2차러일협약(1910.7.4)의 체결을 지목했다. 왜냐하면 제2차러일협약의 합의사항은 양국간의 만주분할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에게 몽골 지배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의 러시아와 청국간에 체결된 외교협정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차러일협약의 비밀조항에서는 양국간의 만주분할 합의와 몽골은 러시아의, 한국은 일본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기

в.-1917), Барнаул, 2003. С.256.

20) РГИА. Ф.560 Оп.28. Д.436. Л. 2-7. : Письмо Министра Мида В.Н.Кокочеву, 17 ноября 1910 г.

21) РГИА. Ф.560 Оп.28. Д.436. Л. 50-51об. : Журнал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по Дела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етербург, 13 января 1911 г.

22) РГИА. Ф.560 Оп.28. Д.436. Л. 2-7.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길로 나아가고, 러시아는 몽골의 독립을 지원하여 자국의 세력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외교적 토대의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²³⁾ 따라서 1910년 말 청국이 종래의 러청통상조약 개정을 도모함으로써 촉발된 러청관계의 변경시도는 일본의 한국병탄이 그 단초가 되었다.

이에 이즈볼스키는 제2차러일협약에 대한 중국의 의심과 반발에 대해 정면승부를 결정했다. 청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대중국 강경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신장·몽골에서 러시아의 특권을 보장한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1881)의 범위를 무력을 통해 만주까지로 확대하는 정책에 방점을 찍게 하였다. 이는 현 단계에서 새로운 러청관계를 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그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 근거는 첫째, 청국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다. 청국의 사법당국이 외국인의 재산과 통상을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문은 외국인의 치외법권 폐지와 영사재판권 폐지 요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이 조세 및 재정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역시 호혜적인 러청관계 수립불가의 근거가 되었다. 청국의 취약한 재정건전성은 군사력 증강을 더디게 할뿐만 아니라 외국의 영향력에 자주 노출되는 허약한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는 바,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에서 청국은 결코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 그 결과 이즈볼스키는 청국이 가까운 장래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 추방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²⁴⁾

결국 러시아에게 청국은 청일전쟁 이후 비밀동맹조약을 체결했던 동맹국은 더 이상 아니었다. 청국을 대등한 협상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단은

23) 이에 청정부는 제2차러일협약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회람각서(1910.7.21)의 형식으로 천명한바 있었다. 1) 청정부는 포츠머스강화조약에서 약속된 만주전역에 대한 행정권을 회복하고, 만주의 영토보전 및 기회균등 원칙의 준수, 만주의 통상 및 산업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청일협정(1905)에서 합의된 만주의 문화개방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것이었다.

24) РГИА. Ф.560 Оп.28. Д.436. Л. 2-7.

청국의 조약개정 시도를 무력시위를 통해 제압한다는 정책으로 표출되었다. 짜르정부는 청측에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고 최후통첩의 형식으로 이를 수용토록 압박하는 한편, 군사력으로 이를 관철시킬 준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청국정부에 러청간의 통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은 불가능한 것임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이에 청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할 조약은 타열강과의 조약체결에 있어 결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열강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한 청정부와 1881년의 조약체제 틀 속에 여전히 청국을 속박시키고자한 러시아의 힘겨루기는 1911년초 청국의 대외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있었다.

청국의 대러통상조약 개정시도와 더불어 러시아외무성이 청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상정하게 된 배경에는 만주 철도문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한 청정부의 책략이 있었다. 이는 청정부가 러시아의 東淸鐵道(The Chinese Eastern Railway)와 일본의 滿鐵이 만주를 균점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신디케이트의 공조하에 추진한 금애철도(金愛鐵道) 부설사업과 관련이 깊다. 외무상 이즈볼스키가 재무상에게 보낸 기밀서신(1910.12.8)에 따르면, 이 철도부설 계획은 미국이 중국을 지원함으로써 만주에서 러일의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만주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²⁵⁾ 이는 미국은행 신디케이트 대리인 스트레이트(W.Straight)가 금애철도 부설을 위한 협의를 위해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여 재무상, 외무상, 및 스톨리핀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철도의 부설목적이 알려졌다. 스트레이트가 러시아를 방문한 목적은 만주소재 모든 철도의 국제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인바, 이는 만주에 부설된 모든 철도의 중립화 계획이 핵심이었다.

러시아 정책당로자들은 이 철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청국과 미국은 기존의 동청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구화시키려는

25) РГИА. Ф.1276. Оп. 5. Д. 610. Л. 162-164. :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Кокковцова-Извольскому, 22 ноя. 1910 г.

경쟁노선을 부설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며 2) 금애철도가 여태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 러청국경의 가장 취약한 지역인 아이훈을 향하고 있어 향후 러시아에게 막대한 국경방위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²⁶⁾

이에 스트레이트는 미국 은행신디케이트의 계획이 러시아의 철도에 침해를 가할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음을 전제한 후, 금애철도 부설계획의 본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의 만주 철도를 결코 포기하려 않을 것이며 2) 미국은 만주에서 독자적인 철도를 보유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합법적이고 근거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신디케이트는 철도부설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상기 철도 부설의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스트레이트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이즈볼스키는 “만주에서 미국인의 기업활동과 자본투자에 대해 방해할 의향이 없으나, 계획 중인 노선이 러시아철도 관련 기업들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호혜적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다. 신설 철도가 기존의 동청철도와 만주에서 조금이라는 경쟁이 된다면 결코 호혜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즈볼스키의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 이는 미국신디케이트가 금애철도 대신 동청철도를 보완하는 蒙古橫貫鐵道 부설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었다. 이즈볼스키는 우르가-칼간-북경노선을 부설한다면, 이는 동청철도를 보완하는 노선으로서 러시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그에 따른 협정도 미국과 체결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스트레이트가 서둘러 러시아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즈볼스키는 미국은행신디케이트가 러시아를 위해 내몽골횡관철도 부설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²⁸⁾ 결국 청정부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러청통상조약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러청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결정적

26) Там же.

27) РГИА. Там же. Л. 77-88. :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Извольского-Столышину, 3 дек. 1910 г.

28) Там же.

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청국의 현상변경 시도가 군사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측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은 농후했다.

3. 滿蒙위기의 구조

: 美·淸·獨의 滿蒙회복정책과 露·日의 滿蒙분리정책

상술한 청국과 러시아의 대립 배경에는 만몽(滿蒙)문제를 둘러싼 “보편과 특수”라는 상충된 인식차가 자리잡고 있었다. 청국은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을 위해 대미공조를 추진한바, 이는 미국이 만주의 문호개방과 영토보전이 라는 보편의 원칙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미청간의 공조에 독일도 지지하고 나선바, 독일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만주문제에 뒤늦게 참여한 후발자본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이 만주를 둘러싼 세계경쟁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상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만주의 문호개방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만주의 문호개방을 구심점으로 청국, 미국, 독일의 이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법률가 출신인 태프트(W.H.Taft) 대통령시기의 만주정책은 滿蒙을 청국의 일부로 간주한 달러외교(Dollar Diplomacy)로 표출되었고 미국의 對淸借款은 만주에 대한 청국정부의 권리회복 정책의 물적 기반이 되었다. 반면, 러시아는 대일공조를 통해 滿蒙분리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만몽은 러일의 특수이해가 관철되는 자국의 세력권으로 삼고자하였다. 러시아의 이같은 정책은 만몽에서 자국의 특수이해를 보장받기 위해 이곳에 대한 타 열강의 개입을 저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보편의 원리”를 주창한 청국, 미국, 독일을 한축으로 하고 “특수의 원칙”을 옹호한 러시아와 일본을 다른 한축으로 하는 대결구도는 만몽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북방변경에 대한 이같은 상충적인 인식차이는 신해혁명 이후 수립된 신중국정부의 안착보다는 혼란을 부추김으로써 중국의 장기적 위기

의 근본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청정부가 한일병합 이후 러청관계의 현상변경을 도모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신중을 거듭했다. 러일전쟁 패배이후 러시아제국의 위곽을 이루던 발칸반도에서부터 제국의 붕괴가 시작되었던 바, 1909년 3월 러시아의 약세를 틈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한 오스트리아와 전쟁의 위기에 치달았던 짜르정부는 발칸에서의 전철을 극동에서 재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만주에 대한 청국과 미국의 공조계획을 좌절시키고 군사적으로 북만주의 점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은 러시아측의 대응책은 ‘만주에서의 러시아 군사 정세보고서’를 첨부한 육군상 수호플리노프가 재무상에게 보낸 기밀서신(1910.12.1)에 정리되어 있다.²⁹⁾ 육군상은 청정부의 대러입장이 돌변한 계기는 1906년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따른 러시아군대의 만주철병인 바, 1910년 현재 만주에 2개 보병사단(요녕성에 각 1개 사단)이 신설됨으로써 반러적인 태도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평시에는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전시에는 정규군에 편제되는 ‘수비대’ 명칭의 비정규군, 1910년 봄 만주에 도입된 헌병제도, 비상시 동북삼성 총독이 소집할 수 있는 경찰, 개별 접경지역 군관구에 창설된 30여명 규모의 첩보부대 그리고 만주의 보통학교에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의 도입 등은 육군성에서도 크게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포츠머스조약 제3조에 따라 동청철도 보호를 위해 1km당 15명으로 주둔군 규모를 제한받고 있었기 때문에, 북만주에서의 이권사업뿐만 아니라 동청철도의 보호까지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육군상은 일본과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러일간의 공동보조를 통해 북만주를 복속시키는 형태의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러시아는 만주에서 축출되고 연해주까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그는 지금이야말로 청국의 군사력

29) РГИА. Ф.560 Оп.28. Д.436. Л.18-28. : Письмо Сухомлинова-Коковцову, 18 нояб. 1910 г.

증강이 미진한 북만주와 청정부의 배타적인 행정·사법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한 몽골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적기임을 강조했다.³⁰⁾

그러나 러시아 육군성의 북만주 병합구상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외무상은 득실을 따져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는 러시아의 국내정황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인 동시에, 중국에게 만주와 몽골에서 러시아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즈볼스키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 청정부의 봉괴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의 국경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계승자는 될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입헌운동이 청국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면, 이 틈을 타 획득한 영토는 강력해진 인접국가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러시아는 획득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국력을 소모해야만 하는” 모험적인 계획이 될 것임에 틀림없었다.³¹⁾ 따라서 1911년 1월 26일 “동아시아문제 특별회의”가 소집된 것도 이같은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對淸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³²⁾

스틀리핀 총리가 주재하고 육군상, 해군상, 재무상, 통상산업상, 외무상 및 부외상이 참석한 이날회의는 종래의 러시아의 대청무역특권의 유지와 확대를 목표로 삼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한 압박수단들이 검토되었다. 회의는 러청현안에 대한 외무상의 보고로 시작되었다. 보고의 요지는 짜르정부가 북경주재 러시아공사를 통해 제기한 몽골 서부의 흙드(Khovd)지역 영사관 개설문제와 신장지역 특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러시아 상인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북경정부가 거부의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몽골과 신장지역에 대한 자국의 요구를 청국이 수용하도록 하는

30) Там же.

31) РГИА.Ф.560 Оп.28. Д.436. Л.2-7. :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Извольского-Коковцову, 17 нояб. 1910 г.

32) РГИА. Ф.560 Оп.28. Д.436. Л. 50-51об. : Журнал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по Дела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етербург, 13 января 1911 г.

방안으로 군사적 압력을 수반한 대청 최후통첩안을 도출해냈다.³³⁾

이러한 러시아의 초강경 대응은 만주에서 또다시 발칸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1908년 8월 19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오스트리아 외상 에렌탈은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계획을 상정한바, 그 논거로 병합의 반대국가는 러시아와 터키인데, 양국 모두 군사력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합추진의 호기가 도래했음을 강조하였었다. 그 후 1908년 9월 15일 에렌탈 외상이 이즈볼스키에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병합은 결정되었음을 통고했을 때, 오스트리아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저항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러시아는 1909년 3월 오스트리아-독일 연합군과 전쟁직전의 위기로까지 몰리면서 발칸문제를 둘러싼 외교상의 실패를 절감하였다. 따라서 한일병합 이후 청국의 대러 현상변경요구에 직면한 러시아는 발칸의 전철을 결코 되풀이할 수 없었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제국의 붕괴가 변방에서부터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현이기도 하였다.

이에 특별회의에서는 무력시위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만주 현지에서 군사시위 방책은 그곳이 제3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대신, 신장(新疆)의 일리(伊犁)지역 근방의 러시아령에 군대를 집결하여 러청통상조약 갱신협상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러청통상 관련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 갱신기한인 1911년 2월 20일 이전에 대청 최후통첩을 발송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르켄트(Jarkent) 주둔부대를 일리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신장과 몽골에서의 무관세 무역특권유지를 포함한 6개조 최후통첩³⁴⁾이 1911년 2월 16일 북경정부에 전달됨으로써 러청양국은 일축

33) Там же.

34) Там же. 1) 신장과 몽골에서의 무관세 무역특권유지, 2) 국경지역 50리 이내에서의 무관세 무역유지, 3) 치외법권적 지위유지, 4) 중국에서 토지 및 건물축조 권리, 5) 자국 국경 내에서는 수출입관세를 단독부과, 6) 홉드(Khovd), 하미(哈密), 고성(古城)지역의 영사관 개

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다.³⁵⁾

그렇다면 발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러시아는 러청간의 전쟁위기가 무력 충돌로 확대될 경우, 그 결과를 자신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러청국경의 일리(伊犁)지역에 러시아군대를 배치시키되, 결코 국경을 넘지 않기로 한 상기 특별회의의 결정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대청 압박수단으로 군사적 위협의 성공여부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면, 그들의 기득권 유지와 특권획득의 방책으로 고민한 해법은 바로 “일본카드”였다. 이미 만주의 분할 관련 제1차협약과 한국병합 관련 제2차협약을 성사시킨 바 있었던 외교적 경험은 대청압박을 위한 러일간의 외교공조를 의미하는 ‘일본카드’의 활용에 기대를 걸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카드’는 러청간의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가 외상에게 보낸 보고서(1911.2.23)는 최후통첩을 둘러싼 청국과 일본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다. 청국의 경우, 부외상 후웨이더(胡惟德, 1863-1933)는 러시아의 최후통첩에 대한 자국정부의 회신을 전달하면서, 제기된 문제는 청정부의 음모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방관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하였다.³⁶⁾ 또한 그는 통상조약 갱신을 둘러싼 러청간의 갈등이 단지 일본에게만 유리할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일본 역시 갱신에 따른 동등한 특혜를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초 러청통상조약 개정을 염두에 두었던 청정부가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데 국한시키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힌 후웨이더는 러시아와 우호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³⁷⁾ 결국 청국의 대러정책의 변화에는 러청통상조약 갱신을 둘러싼 협상과정에 개입하고자한 일본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했다.

설권을 포함한 6개조 최후통첩

35) Там же.

36) РГИА.Ф.560 Оп.28. Д.436. Л.65. : Се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Коростовца, Пекин. 17 февраля. 1911 г.

37) Там же.

러시아 역시 러청통상조약 갱신문제에 외교적으로 지원한 일본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동아시아문제에 대한 러일공조라는 큰 틀에서 양국은 협력하였지만, 중국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공조에 대해 러시아는 신뢰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중정책을 구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측에서 먼저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후자는 중국문제에 대한 러일공조는 결코 신뢰할 만큼의 수준에 다다랐다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었다.

이는 코로스토베츠의 보고서에서도 재확인된다. 駐北京日本公使 혼다(本田)가 일본외상의 훈령에 따라 청정부에 러시아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도록 조언한 후, 이를 주청러시아공사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공사는 일본측의 진의를 의심했기 때문이다.³⁸⁾ 그 후 혼다는 중국외상 나룽(那桐 : 1856-1925)을 방문, 일본은 우호적인 중러관계를 희망하며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도록 조언함으로써 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통보했을 때에도 코로스토베츠의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주청러시아공사는 일본의 개입 원인을 3가지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일본은 러시아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독자적인 행동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아시아 대륙, 특히 중국문제에 대한 헤게모니를 지향하는 일본으로서 對淸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으며 셋째, 장기적으로 쿨자(Kuldja) 지방이 러시아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그것이다. 결국 러청갈등에 중재자를 자임한 일본은 러시아에게는 청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조력자로서, 청국에게는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했다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나 러청양국은 그 이중정책의 본질을 간파하고 말았다.³⁹⁾ 따라서 러청 양국의 대일불신이 청국의 서북변경에서의 무력충

38) Там же. Л.103-104. : Се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Коростовца, Пекин. 18 фев. 1911 г. 그 후 혼다는 재차 코로스토베츠를 방문, 중국외상 나룽(那桐 : 1856-1925)을 방문, 일본은 우호적인 중러관계를 바란다고 말하고,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 것을 제안하여 나룽도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통보했음.

39) РГИА.Ф.560 Оп.28. Д.436. Л.133-136. : Се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Коростовца, Пекин. 23 фев. 1911 г.

돌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한편으로 제2차러일협약(1910)에 근거한 러일공조의 한계를 절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정부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는 군사적 압력을 통해 당초 확보하고자 한 본연의 목적은 이룰 수 있었다. 더욱이 러시아는 일본이 제2차러일협약에 근거하여 한국을 병합한 전례를 따라, 이제 몽골을 자국의 배타적인 세력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하고자 했다. 이에 러시아의 최후통첩 관련 중국 언론보도를 보고한 북경주재 공사 코로스토베츠의 보고서는 만몽문제를 둘러싼 짜르정부의 정책방향의 기능자가 되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언론에서 러시아의 최후통첩이 어떤 침략적인 행동보다는 몽골을 점령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움직임이 몽골의 문호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열강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⁴⁰⁾ 요컨대 청정부 역시 한일병합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제2차러일협약에 따라 청제국으로부터 몽골을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에 몽골을 청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자국의 세력권에 포함시키려한 러시아와 몽골을 자국의 판도 속에 묶어 두기위해 대미공조를 지속하고자 한 청정부간의 대립이 재차 부상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부터 형성된 만몽문제를 둘러싼 露·日대美·淸의 대립구도는 중국북방변경이 새로운 판도로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노정되었다. 1909년 미국무장관 녹스의 주도로 제안된 만주철도중립화안이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대응을 야기했듯이 미국이 만주개발 자금을 포함한 대청차관을 주도한 것은 러일의 관계강화의 기제가 되고 말았다. 1911년 봄 미국의 대청차관은 한일병합 이후 일본의 대러지원의 한계를 경험했던 러시아에게 미국에 맞선 제3차러일공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청정부가 화폐개혁을 추진하고 만주에서 산업을 진

40) Там же.

홍시키기 위해 1911년 4월 5일 차관도입 협정을 체결한 것은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운동의 산물이었다. 청국의 재무대신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4개국 공동차관단이 체결한 이 협정은 차관총액 5천만불(\$50,000,000) 가운데 만주산업발전에 할당될 자금 이천만불(\$20,000,000)이 포함된 바, 이는 청정부의 만주에서의 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만주에 대한 지배력회복 의지를 담고 있었다.⁴¹⁾ 따라서 청국과 4개국 은행단간의 차관협정은 1907년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세력권으로 획정하고 있던 러시아와 일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을 시도한 청국 및 차관을 통해 이를 지원한 미국과 만주에 대한 현상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한 러일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미청과 러일의 대립은 그 결과에 따라 대조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데, 전자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청정부는 만주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주권회복과 문호개방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 만몽에 대한 러일 양국의 독점이 강화될 것이었다.

이 차관은 당초 미청통상조약(1903.10.8) 제13조에서 청정부가 전 중국에서 통용되는 단일화폐 채택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⁴²⁾ 이에 1910년 봄 주미청국대사는 미국무성에 청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통보한 후, 1910년 6월 14일 국무성을 방문,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동년 10월 2일 청정부는 주청미국대사를 통해, 만일 미국은행들이 차관제공을 주관한다면, 만주에 할당된 차관 2천만 냡을 포함한 총규모 5천만냥(tael)의 차관을 5천만 달러(\$)로 증액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아울러 화폐개혁을 도와줄 재정고문으로 미국인을 임명할 것임을 약속한 청정부에 대해 모건 신디케이트(Morgan Syndicate)가 주간사인 미국은행단은 이를 수락하였다.⁴³⁾ 요컨대 청정부는

41)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Special Envoy of China, 1911. 1. 18. Notes on the course of the loan negotiations now pending at Peking,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함), 1912. pp. 92-93.

42)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Special Envoy of China, 1911. 1. 18. Notes on the course of the loan negotiations now pending at Peking, FRUS, 1912. pp. 92-93.

43) Calhoun-Knox, 1910.10.2, FRUS, 1912. pp. 90.

“달러외교(Dollar Diplomacy)”를 표방한 미국의 태프트행정부에 대청차관을 구실로 만주문제에 깊숙이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청국의 기대와는 달리 단독차관보다는 유럽은행들과의 공동차관 형식을 선호했다. 화폐개혁은 청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을 완수하는데 있어 청국과 이해당사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⁴⁴⁾ 이는 태프트 행정부의 대청정책을 주도한 국무장관 녹스(Philander C. Knox)의 주청미국전권공사에게 보낸 각서에 잘 나타나있다. 녹스는 “자본을 투자한 국가들은 그곳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자원개발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전제한 후, “청정부가 화폐개혁차관에 여타국가의 자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동의해줄 것을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는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토대로 달러를 실탄으로 삼아 평화적으로 중국시장으로 침투하려는 미국의 “달러외교”의 장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요컨대 “달러외교”란 차관제공국이 평화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수혜국은 차관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매우 이상적인 외교형태로 간주되었다. 이에 1910년 10월 27일 청채무대신은 미국이 채권의 대부분을 보유함으로써 차관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차관단에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⁴⁵⁾

그러나 녹스가 주도한 달러외교는 이상주의적 원칙을 추구함으로써 동시에 비현실인 측면도 강했다. 이는 청국의 개혁정책의 한계이기도 한바, 무엇보다 청국에 이해를 가진 모든 열강이 이를 지지하고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녹스가 지적한대로, 중국의 개혁정책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열강이 있을 경우, 청정부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따라서 청국의 개혁에 무관심한 일부국가들을

44)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Ambassador to France, 1910.10.31, FRUS, 1912. pp. 91-92.

45) Calhoun-Knox, 1910.10.27, FRUS, 1912. pp. 91.

적극적인 지지국으로 변모시킬 강제력을 과연 미국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청국의 개혁정책 성공의 관건이었다. 청국과 이해당사국 모두가 청국의 개혁에 협력할 경우, 성공의 과실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개혁에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강제할 힘과 제도를 미국은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청국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미국과 특정지역의 기득권 유지라는 현실적 이익을 추구한 국가들간의 대립은 이후 보편과 특수라는 중국 근대사 전개에 핵심축이 되었다.

청정부가 화폐개혁 및 만주산업개발을 위한 차관예비협정에 서명하던 날, 러시아의 부외상 네라토프는 만주에서 러시아의 기득권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⁴⁶⁾ 이는 청정부의 만주 산업 개발계획과 군사력 증강정책이 만주에 부설된 러시아철도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정세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으로 자국 철도에 대한 청국의 파괴공작을 경험하고 1900년 만주점령을 통해 이를 해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군대의 만주철병이 이루어진 반면, 청정부가 오히려 만주진흥을 위한 경제개발 및 군비증강을 적극화함에 따라 만주에 부설된 러시아철도인 동청철도의 보호는 초미의 급선무가 되었다.⁴⁷⁾ 그럼에도 문제는 만주주둔 러시아군대의 증강의 제약요인이 있다는 점이었다. 첫째,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러시아군대의 만주주둔 규모가 제한되었고, 둘째, 러시아가 1개 사단을 증가시키더라도 이에 맞서 청국이 2개 사단을 증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이에 네라토프는 일본과 이 문제를 논의하여 궁극적으로 러청일 3국간의 협정체결을 최선의 해법으로 상정했다. 만주에서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한 3국협정체제에 청국정부를 끌어들이고 만주에서 군사조치를 취할 경우, 체약국간의 상호협정을 준수한다는 조약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三國協定締結論”의 골간이었다.⁴⁸⁾ 요컨대 법률로써 만주에 대한 자국

46) РГИА, Ф. 560. Оп. 28. Д. 436 Л. 194-195 : Письмо Нератова-Стольшину, 2 Апрель 1911 г.

47) Там же.

48) РГИА, Ф. 560. Оп. 28. Д. 436 Л. 206-217 :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Нератова-Стольши

의 이해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만일 청국정부가 3국협정에 참여거부를 한다면, 러시아는 일본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청국이 만주주둔 자국군대의 규모와 배치에 관한 의무를 지도록 한다는 것이 그 요체였다.

네라토프가 주러 일본대사 모토노(本野)를 만나 청정부의 만주에 대한 지배권 강화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도 이같은 그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문제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전자는 청국의 만주군 증강이 야기할 수 있는 철도파괴를 우려했던 반면, 후자는 청국군대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혹은 일본을 공격할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위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모토노는 그가 예견하는 유일한 위협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건설중인 ‘파나마운하(Panama Canal)가 완공되면, 태평양의 미국함대는 매우 강력해짐으로써 일본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급급해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모토노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러일 양국은 청국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본정부에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할 것임을 약속하고 만주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양국간의 협의는 도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⁹⁾ 모토노에게는 러시아가 우려하는 만주에서의 청국군대 증강보다, 미국의 만주시장 침투가 훨씬 심각한 위협이었다. 그 결과 미청의 만몽회복정책과 러일의 만몽분리정책간의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갔다.

누, 2 Апреля 1911 г.

49) Neratoff to the Russian Ambassador at Tokio. April 29 1911.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p.31.

4. 滿蒙위기의 결과 : 내몽골분할을 위한 第3次露日協約 체결과 발칸·滿蒙문제의 접속

일본정부가 동아시아정책에 대한 새로운 판짜기를 구상한 것도 미일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영국과의 동맹관계 역시 현저하게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不戰條約을 체결한 영국과 제3차영일동맹(1911)이 체결된 상황에서 어떠한 일본인도 미일전쟁시 영국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동맹이 일본의 팽창을 억압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영일동맹은 체결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맹외교의 주축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는 일본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인 현실이었다.

이에 일본정부가 현상타개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주목한 나라는 다음 아닌 러시아였다. 이는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Малевский -Малевиц Н.А.)가 귀국을 앞두고 일본정계의 주요거물들과 일련의 회동을 한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⁵⁰⁾ 러시아대사를 방문하여 휴가를 잘 다녀오라는 안부를 전한 뒤, 러일협정 체결의 이익에 대해 설파한 사람은 아마가타였다. 말렙스키-말레비치 대사가 “양국간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하고 극동의 평화를 위해 아시아대륙에서 상호이해를 제고할 것을 희망”한 아마가타의 발언에 주목한 계기는 후자가 천황과 매우 지근한 사이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마가타와의 회동 직후 러시아대사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하여 러일관계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한 이는 수상 가쓰라이다.⁵¹⁾ 수상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아마가타에 이르기까지 러일간의 우호관계 수립과 대러접근의 당위성을 주장한 일본정계 지도자들의 견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천황이 승인하고 지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천황,

50) РГИА. Ф.1276 Оп. 3. Д. 721 Л.56-60об. : Секретная записк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ца, 27 Июня 1911 г. Л.56-60об.

51) Там же. Л.56-59об.

원로, 각료들이 대러접근에 공감하고 지지한 궁극의 목적을 가쓰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만일 양국 국민간의 우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면, 양국은 극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 정치·경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열강간의 각축의 중심으로 태평양이 부상하게 될 때” 양국간의 공조의 효력이 각별해진다는 것이다.⁵²⁾ 따라서 일본의 당로자들은 향후 도래하게 될 태평양시대의 패권장악을 위해, 미국과의 중재조약이나 영국과의 동맹강화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태평양시대를 대비할 러일공조의 출발점으로 가쓰라는 중국, 특히 만주를 지목했다. 말레스키-말레비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쓰라는 현재 중국이 극동을 둘러싼 열강의 격전장이 되었기 때문에 양국간의 정치적 공조가 더욱 필요하며, 특히 만주의 경우 러일 양국이 주인임을 표명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하고 제3국의 일체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는 정황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따라서 만주의 산업진흥을 위한 미국주도의 4개국 공동차관은 러일 양국으로 하여금 만주문제에 대해 공동행동하기로 결정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가쓰라 수상이 4개국공동차관에 반대한 속내는 무엇인가? 중국의 내부사정에 밝은 그가 외국차관에 반대한 이유는 다음의 2가지였다. 첫째, 청정부내에 협상력과 권위를 갖춘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 둘째, 외지를 끌어들이며 내정을 개혁하려는 청정부의 정책방향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차관의존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가쓰라의 비판은 청국이 대외채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결국 국가파산으로 이어져 독립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었다. 요컨대 외국채권단은 지급보증을 요구하며 중국의 재정을 국제적으로 감독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에 가쓰라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52) Там же.

전까지,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에서 양국의 이해를 보장할 공동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⁵³⁾

가쓰라의 이같은 견해는 주일러시아대사가 본국 출발 전 외무성에 들렀을 때 고무라 외상에 의해 재확인 되었다. 외상 역시 청국의 정황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러일양국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⁵⁴⁾ 고무라가 주목한 청정부의 위기는 외국차관 도입에서 비롯된 재정위기가 그 본령이었다. 외상의 진단에 따르면, 첫째, 청정부는 일단 외자유치에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차관에 의존하게 되어 머지않아 심각한 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둘째, 값싼 이자의 대규모 차관도입에만 혈안이 되어있을 뿐, 채무 보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점 셋째, 청국은 행정개혁과 화폐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차관이 필요하지만, 차관 운용에 미숙한 청국인들이 외자유치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무라는 현재 청국의 재정상태로 미루어 중국이 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지는 의문이며, 이는 조만간 국가파산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러시아와 일본은 청국의 파산사태에 대비해야하는 바, 만주에 대한 양국의 권리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이같은 일본외상의 견해는 신해혁명 발발 이전부터 일본당로자들은 청국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도면밀하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무라는 청국의 국가부도사태 뿐만 아니라 4억 인구의 청국에서 新軍은 4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정부가 과연 개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소요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왜냐하면 청국에서 반정부진영에 혁명운동을 지도할만한 강력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혁명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것이 청국경제에 끼칠 엄청난

53) Там же.

54) Там же.

55) РГИА. Ф.1276 Оп. 3. Д. 721 Л.56-60об. : Секретная записк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 ча, 27 Июня 1911 г. Л.56-60об.

악영향은 청국의 재정과탄을 앞당길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고무라는 “일본의 대러접근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천황이 원하는 사항임을 러시아정부에 꼭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러시아출발 당일 교통상 고토가 직접 말렙스키-말레비치 대사를 찾아와 러일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할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⁵⁶⁾ 이제 러시아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편승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러시아가 대일공조를 통해 만몽에서 자국의 권익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계기는 신해혁명의 발발이었다. 1911년 9월 3일 주청미국대리공사 윌리엄스(E.T. Williams)는 미국무부에 청국의 사천성에서 외국인의 철도부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호남성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예견되었던 혁명과 더불어 청제국의 와해가 가시화되었다.⁵⁷⁾ 청제국의 와해는 변경의 위기를 동반했는데 봉합되어 있던 몽골의 독립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러시아와 일본은 1910년 제2차러일협약에서 몽골과 한국을 각각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만일 몽골이 중국에서 분리될 경우, 몽골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한국에서 일본의 지위와 동등해질 것이었다. 이에 1907년 제1차러일협약의 비밀조관 부속조항에서 합의된 만주분계선에 따라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한 바 있던 러시아와 일본은 몽골·북만주와 한국·남만주에서 각각의 특수권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었다. 이에 滿蒙지역에서 양국간의 세력권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유일한 지역은 바로 내몽골이었다. 따라서 신해혁명에서 비롯된 중국의 정치 불안은 청제국 변경의 위기로 변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따라서 신해혁명은 몽골의 독립선언(1911.11.30), 러일의 내몽골분할(1912.7.8), 러몽협약 체결(1912.11.3)로 이어지는 중국북방변경 위기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기로 한 제3차러일협약은 단지 일본과 러

56) Там же.

57) Williams-Knox, Sept. 3. 1911. FRUS. 1912. pp.47-48.

시아 양국 간의 협상의 산물일 뿐, 결코 청국이 동의하거나 묵인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청제국의 서북변경을 구성하고 있던 몽골은 외몽골의 경우, 독립선언을 거쳐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내몽골은 동서로 획분되어 러일의 세력권으로 변모된 과정은 청제국의 위기, 몽골의 독립의지, 러시아와 일본의 만몽침략정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특히 신해혁명기 내몽골 문제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의 두 가지인데, 첫째, “신해혁명”이라는 청제국의 위기는 유럽의 발칸반도의 위기와 연동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세계적 규모의 제국주의 위기의 일익을 담당했고 둘째,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과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는 신해혁명보다는 유럽의 발칸위기를 보다 중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적 규모의 제국주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가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관심을 집중해주길 원했다.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발칸위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는 러시아가 특수이해 지역으로 설정한 몽골, 북만주, 중국서부에 대한 특권을 승인하기에 이른다.⁵⁸⁾ 이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상호 동맹과 협상체결을 통해 형성한 4개국양탕트체제(Quadruple Entente System)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제국주의 시기 국제관계를 재단하고 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4개국양탕트체제는 정치적 의미의 카르텔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외무성이 모종의 외교적 성과를 내야만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이에 일본외무성은 1912년 12월 28일 몽골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내무, 외교, 군정, 재정, 사법의 5부를 설치하여 정부를 조직한 문제에 주목한 바, 몽골의 승인을 둘러싸고 러일간의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는 사이온지(西園寺) 내각의 소극적인 對淸정책에 대한 아마가타(山縣有朋)와 육군수뇌부의 노골적인 비판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⁵⁹⁾

58) Reid-Knox, June 10 : 11. 1911. FRUS. 1912. pp.136-137.

따라서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던 우치다 외상은 남만주의 외연 확장에 착목하게 되었다. 그는 제1차러일협약(1907.7.30)에서 획정한 북만주와 남만주의 분계선을 서부로 연장하여 내몽골을 동서로 양분함으로써 남만주와 맞닿아 있는 내몽골 동부로 자국의 세력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몽골의 동부는 일본의 특수이권 지역으로, 서부는 러시아의 그것으로 승인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만주에 한정된 일본의 세력권을 내몽골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군사력이 아닌 러시아와의 외교협상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것이었다.

우치다는 그 실마리를 제1차러일협약 제3조에서 찾았다. 여기에서 일본은 외몽골에서 러시아의 특수이해를 인정한 바 있었지만, 내내몽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우치다는 1912년 1월 10일 주러대사 구리노에게 러일 양국이 내몽골에서의 세력범위를 설정할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하고, “내몽골의 장가구(張家口)-고륜(庫倫)을 잇는 대도(大道)를 경계로 동서로 양분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⁶⁰⁾ 그러나 구리노는 이 문제에 대한 답판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得策임을 진언한 바, 현재 러시아가 기회가 되면 만주의 분할을 단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강력한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⁶¹⁾ 더욱이 만주의 분할은 청국사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던 사이온지 내각에게 결코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던 일본정부는 남만주에서 내몽골로 세력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모색에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우치다는 러시아정부가 공식적으로 몽골과 외몽골의 명확한 용어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내몽골 문제를 양국간의 공식의제로 상정하기에 이르

59) РГИА. Ф.560 Оп. 28 Д.463 Л3-30б. : Доверительное Письмо А.А.Броневского. 29 ноября 1912 г.

60) 日本外交文書 第45卷, 第1册, pp.40-43. 內田外務大臣-露國本野大使, 1912.1.10.

61) 위의 책. pp.44-45. 露國本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1.13.

렀다. 이는 1912년 1월 11일 몽골의 독립에 관한 러시아 외무성의 성명에서 “러시아는 몽골을 침략할 야심은 없지만, 내몽골에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몽골이 청국과 관계를 단절할 경우, 내몽골 정부와 업무상 관계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의 성명을 발표한 것⁶²⁾이 그 발단이 되었다. 여기에서 일본외상 우치다는 외몽골과 구분하지 않고 시종일관 사용된 “몽골”이라는 용어가 내몽골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를 묵과할 경우, 러시아는 제1차러일협약 제3조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광대한 전몽골(全蒙古)을 특수이해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⁶³⁾ 따라서 “양국간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내몽골에서 양국간의 세력범위 확정을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교섭의 초점은 내몽골의 동서분계선의 기준설정 문제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러일 양국은 내몽골 분할을 즉각 단행할 수 없었다. 열강의 견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내몽골의 분할이 열강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열강은 “중국사태에 대한 열강의 공동행동”이라는 명분하에 러일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러일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렇다면 “열강의 공동행동”이라는 굴레에 대해 러일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1912년 2월 26일 주일러시아공사 브로넵스키의 보고서에 따르면, 2월 1일 독일외무성은 ‘베를린 주재 외교대표단의 의견’이라는 명분으로, 駐獨日本公使에게 중국사태에 개입이 필요할 경우, 열강은 공동행동 해야만 할 것임을 통보했다는 것이다.⁶⁴⁾ 이에 우치다 외상은 “공동과 특수이익”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다. 그는 주독공사에게 “본국정부 역시 중국에서 열강의 공동이해와 관련될 경우, 공동행동을 유지할 것이나, 일본의 특수이익에 관련된 지역일 경우, 일본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회신토록 지시했다.

62) 日本外交文書 第45卷, 第1册, pp.43-44. 露國本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1.11.

63) 위의 책. pp.48-49. 露國本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1.16.

64) РГИА. Ф.560. Оп. 28. Д. 463. Л. 31. :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Д.С.С. Броневского, 13 фев. 1912 г.

한편 러시아의 사조노프 외상은 원세개가 이끄는 중국의 신정부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열강의 신정부 승인 이전에 국제신디케이트가 원세개가 요구하는 대중차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차관은 중국인 스스로 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대중차관은 러시아의 관심을 유럽보다는 극동에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은행가들의 사적인 이해에 복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과연 러시아가 모든 관심과 힘을 극동으로 돌리는 것이 3국협상 진영의 이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영국외상 그레이(E. Grey)와 따져볼 것을 주영러시아대사 벤켄도르프(A. K. Бенкендорф)에게 지시한 사조노프의 훈령(1912.3.18)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⁶⁵⁾ 그 결과 신해혁명의 성패는 유럽에서 독일의 패권주의에 맞서고 있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Triple Entente)측의 이해와 맞물리기 시작했다. 3월 22일 벤켄도르프에게 보낸 전문에서 사조노프는 “대청차관의 조건은 러시아가 극동에서 자국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과 발칸에서 관심을 거두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삼국협상국 공통의 이익”임을 통보했다.⁶⁶⁾ 이는 유럽에서 독일의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 영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러시아의 이해보장이 선결과제임을 의미했다.

이에 영국정부는 러시아가 우려한 대중차관 보다는 “3국협상(Triple Entente)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유럽에서 독일을 겨냥한 3국협상의 결속력 강화에 매진하는 동시에 중국문제에서 러시아의 이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이었다. 더욱이 영국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1912년 4월 2일 주미영국대사에 의해 미국무성에 전달⁶⁷⁾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영국은 미국이 견지한 중국의 문호개방정책을 지지했던 기존노선을 방기하고 중국에

65) Sazonoff-Benkendorff, 1912.3.18.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pp.37.

66) Sazonoff-Benkendorff, 1912.3.22.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pp.37.

67) J.Brys-H.Wilson, 1912. 4. 2. FRUS. 1912. pp. 76.

특정국가의 특수이해지역이 존재한다는 러시아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던 것이다.

이는 상술한 미국무부 부장관 윌슨(H. Wilson)에게 전달된 영국정부의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영국의 그레이 외상이 주영 러시아대사에게 “영국 정부는 러시아가 만주, 몽골, 중국서부(the Chinese west) 지역에서 중국과 조약에 근거한 특권과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비록 “중국과 체결한 조약에 따른 특권과 특수이익”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영국이 상기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단지 러일간의 내몽골 분할 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만은 아니었다. 이는 향후 英淸간의 티베트 분할문제(1914)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했다. 결국 의화단 사건(1899)을 계기로 대두되었던 중국의 문호개방 원칙은 1912년 봄이 되어 이제 중국에 이해관계를 가진 열강이 준수해야 할 불변의 진리에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유명무실한 원칙이 되고 말았다. 이로써 청일전쟁 이후 과분의 위기에 처해있었음에 불구하고 영토를 보전했던 청제국은 문호개방이라는 열강의 대청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무너짐에 따라 구심력이 약했던 변방부터 위기와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1912년에 접어들면서 내몽골의 분할, 티베트의 독립도 문호개방과 영토보전 원칙 파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滿蒙의 문호개방(Open Door)을 추구한 미국과 다른 한편으로 만몽에서 특수이익을 보호하려는 露日의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는 영국이 쥐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과의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1912년 6월 10일 주영미국대사 레이드가 미국무장관 녹스에게 “몽골과 만주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특수권리를 천명한 것에 대해 영국정부는 그러한 권리들을 인정할 것이나, 동시에 문호개방 원칙도 확인할 것”이라는 영국 외무성의 극동국장 랭글리(W. Langley)의 전언을 타전했기 때문이었다.⁶⁸⁾ 영국의 이같은 입장은 일견 절충적이었지만, 사실

68) Reid-Knox, 1912.6.10. FRUS. 1912. p. 136.

상 만몽지역에 대한 러일의 특수이익을 승인한 것으로서, 만몽에서의 문호 개방은 러일 양국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되고 말았다. 결국 내몽골 분할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영국정부가 제공하였다. 이제 전직 일본수상 가쓰라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내몽골분할을 골자로 하는 러일간의 제3차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수순만 남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외상이 주영대사에게 전문으로 보낸 극비문서는 다음 아닌 몽골 관련 러일협약의 초안이었다.⁶⁹⁾ 러일 양국간의 협약체결 이전에 영국에게 비밀협약 초안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는 4국(英佛日露) 양탕트체제의 작동 메커니즘이었다.⁷⁰⁾ 결국 1912년 7월 8일에 체결된 내몽골분할을 위한 비밀협약은 전문과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문에는 체결목적을 밝히고 있는 바, 1) 제1차러일협약(1910)과 제2차러일협약(1910)의 조문을 보완함으로써 만몽에서 각자의 특수이익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2) 제1차러일협약의 추가조관에서 정한 만주의 분계선을 연장하여 내몽골에서의 각자 특수 이익지역을 확정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제1조에서는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분계선에서 출발하여 내몽골의 경계를 정의하고, 제2조에서는 북경의 경도(동경116도 27분)를 기준으로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여 동부는 일본의 특수이익권으로 서부는 러시아의 그것으로 승인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하였다. 제3조에서는 협약 양국이 이 협약을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하였다.⁷¹⁾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와 주러일본대사 모토노가 협약을 체결하던 당일, 전직 수상 가쓰라(桂太郎)가 고토(後藤新平) 등과 더불어 러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는 러일관계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양국관계가 군사동맹의

69) G.A.Schreiner,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 Matrix of the History of Europe*, 1922. pp.39-40. Sazonoff-Benkendorff, 1912.7.2.

70) 1912년 7월 1일 일본 역시 러시아의 동의를 득한 후,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 알렸다.(日本外交文書 第45卷, 第1册, pp.88-90. 露國本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7.1.

71) 日本外交文書 第45卷, 第1册, pp.91-92. 內田外務大臣-在中國伊集院公使, 1912.7.8.

수준으로 발전할 토대가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1912년 11월 3일 전직 주청 공사 코로스토펜츠를 庫倫으로 파견, 中蒙간의 과거의 관계를 단절하고 러몽간의 신시대를 여는 露蒙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강력한 정치블록을 형성한 4국(영불일러)협상체제가 중국문제에 타열강(미국, 독일)의 개입을 억제하고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발제국주의 열강은 만몽지역에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후발제국주의 국가들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4국협상체제에 대한 독일의 도전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주요 원인이 됨으로써, 발칸과 만몽의 위기가 연동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3국동맹(Triple Alliance) 진영과 총력전을 벌이는 동안,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국문제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5. 맺음말

1910년 초 만주문제에 대한 일련의 사설에서 나타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세계관은 당대의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은 탁견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역사로 실천되고 말았다. 특히 大戰爭 발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기원이 만주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한 단재의 세계관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단재선생의 세계관은 당대 세계열강의 최대 관심지역이 만주이며, 만주를 둘러싼 열강의 치열한 각축은 만주문제의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大戰爭이 동양의 발칸인 만주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丹齋는 大韓每日申報 사설「滿洲와 日本」에서 세계사의 중심 무대인 만주가 大戰爭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 한반도에 이어 만주를 경략하고 있는 일본의 대륙침략 포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嗚呼라 日本의 大政治家, 對外交家 伊藤 公도 이미 죽고 또 이 문제가 평지에 갑자기 일어나니 저 일본인들은 장차 어떤 대책을 잡고자 하는지. 日本人이여 世界는 世界人의 世界라 日本의 獨走를 허가하지 않으니 진정한 동양평화의 대책을 잡고 일본의 입지를 공고히하며 동양의 행복을 유지함이 어찌 上策이 아니겠는가”.⁷²⁾

만주문제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은 국제적 사건들과 연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내몽골분할을 이끌어낸 제3차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원인도 신해혁명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발칸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발칸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영국은 러시아를 유럽무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만몽에 대한 러일의 특수권익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해혁명의 성공과 혁명정부의 안착을 위해 중국에 이해를 갖고 있던 열강의 공조는 좌절됨으로써 중국내부의 혼란은 장기화되고 말았다.

또한 제국주의 열강의 합종연횡과 외교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 영토 및 세력의 확장과정은 만몽문제의 전례가 되었던 한국의 경우에도, 그것이 한국인들의 삶과 일상을 피폐화하는데 기여하고 말았다. 일본이 한국병합 이후 만몽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동안 식민지 한국인의 삶은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한 순응여부에 따라 강제이주 혹은 무력저항의 방식으로 갈라졌다. 봉천주재 러시아영사 콜로콜로프(Колоколов)는 일본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韓人農 2,833명이 滿鐵연선 지역으로 이주해왔으며, 3개년 상환조건으로 정착비용을 정부로부터 일시불로 지원받고 있음을 보고(1912.4.24)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한인들을 만철연선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은 정치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주가 성공한다면 향후 철도연선은 식민을 목적으로 한 일본과 한인관할 이주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⁷³⁾

72) 大韓每日申報, 1910.1.12.『滿洲와 日本』, 『단재 신채호전집』, 제6권 논설·사론(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2008) p.448-449

73) РГИА. Ф.560 Оп. 28 Д.463 Л.69-69об. : Выписка из секретного донесения Колоколова. 11 апреля 1912 г.

반면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의 기밀보고서(1912.7.8)에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과 투쟁을 보고하고 있었다. 가쓰라 수상이 러시아와 유럽을 순방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련으로 출발하여 그곳에서 장춘을 거쳐 中東鐵道로 갈아타기로 결정한 배경과 조선총독이 파견한 헌병장교와 한국어 통역관이 가쓰라를 수행하게 된 것도 한국혁명파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했다. 왜냐하면 일부 한인혁명대원들이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로 향발하여 이곳에서 가쓰라를 저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일본정부가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일러시아대사는 블라디보스톡 군관구 사령관 및 곤다치 총독 및 하르바트 장군에게 블라디보스톡과 하얼빈 거주 한인 용의자명단을 발송했음을 사조노프 외무상에게 보고하고 있었다.⁷⁴⁾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러일공조는 대외적 팽창뿐만 아니라 피억압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러일관계에 대한 신뢰는 때로는 강력한 동맹의 형태로 혹은 느슨한 연대의 형태로 태평양전쟁시기까지 이어져왔다.

투고일 : 2013년 11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5일

74) Там же. Л.104-105 : Делегация Гофмейстер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ца, 25 июня 1912 г.

참고문헌

I. 자료

Россий 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 Ф. 560(Концелярия Мин. Фин.)
Ф. 1276(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war, 1898-1914, ed. by G. P. Gooch and Harold
Temperley. Vol II : The Anglo-Japanese Alliance and the Franco-British Enten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12 : Notes on the course of the loan negotiations now
pending at Peking.

日本外交文書 第45卷, 第1冊, 事項 2. 第三回日露協約締結一件.
大韓每日申報

II. 문헌

G.A.Schreiner, ed., 1922,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 Matrix of the History of
Europe.*

吉村道男, 1965, 「第三回日露協約成立前後-露蒙協約との關連において-」, 『國際政治』, 31
號.

배경한, 2011, 「동아시아 역사속의 신해혁명 - 공화혁명의 확산과 동아시아 국제질
서의 재편-」, 『東洋史學研究』, 제117집.

■ Abstract ■

The World View of Shin Chae-ho and the Third
Russo-Japanese Treaty (1910-1912)

—Focusing on the Russo-Japanese Convention of 1912 dividing Inner Mongolia—

Choi Deokkyu

Editorials Shin Chae-ho authored in early 1910 on issues concerning Manchuria reflected his view of the world, which held a precise insight in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the time that unfortunately became a reality for history. The fact that he anticipated the possible outbreak of a massive war originating over Manchuria bears major implications as we near the centenary of the occurrence of World War I. Shin Chae-ho's view connoted a sense of crisis that instability in Manchuria, the Balkan of the East, would become the cause of a massive war as powerful nations at the time took great interest in the region and engaged in a heated competition over it. To solve such a crisis, Shin Chae-ho suggested the following : “Oh, people of Japan, since the world belongs to its people who will not allow Japan to take the lead alone, would it not be wise to maintain happiness by settling for a measure to achieve true peace in the East and strengthen Japan's position within it?”

The core issue of the conflict among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in regards to Manchuria and Mongolia was that the United States regarded Manchuria as part of China, while Russia and Japan maintained the “partition of Manchuria” policy. Such a gap contributed to the failure of a joint action among the powers to help stabilize the new government of China, which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Chinese Revolution. The United States supported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and promoted equal opportunity and open door policy in China.

Meanwhile, Russia and Japan adhered to the “principle of particularity” and set Manchuria and Mongolia as their areas of particular interests and blocked the powers from intervening in these regions. As a result, the future of Manchuria and Mongolia, as to which path these two regions would eventually take, became a great concern. This issue required an approach from a world-history point of view as it was interconnected with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reevaluates the causes that prevented the powers from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Chin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history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imperial period and Chinese policies of the Western powers during the Chinese Revolution. This paper refers to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 sourcebook of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ish documents on World War I, in order to identify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third Russo-Japanese agreement on the partition of Inner Mongolia, and also cites from materials of the National Historical Archives of Russia.

Key words : Shin Chae-ho, World War I, The Russo-Japanese Convention of 1912, The Revised Anglo-Japanese Treaty of 1911, Dollar Diplomacy